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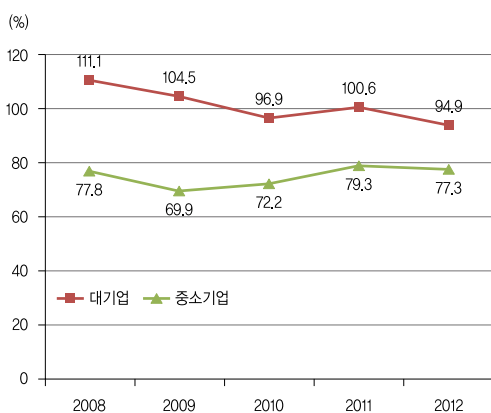
##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금융비용 차이 및 시사점

- 부채비율과 매출액 대비 차입금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임
- 최근 들어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의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
- 간접금융을 통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실적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,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 조달 채널과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
### □ 부채비율과 매출액 대비 차입금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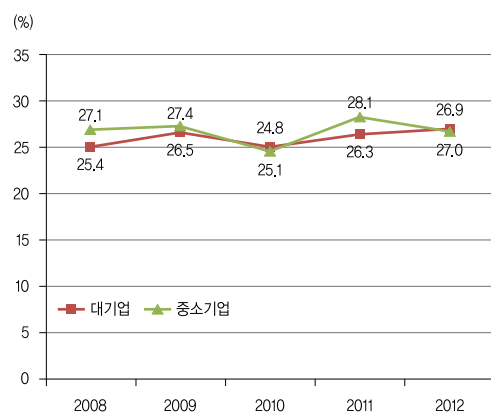
- 부채비율의 경우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가 미미함
  -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낮은 부채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, 대기업 부채비율은 2008년 111.1%에서 2012년 94.9%로 감소하였고,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2008년 77.8%에서 2009년 69.9%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2012년 77.3% 수준임
  - 매출액 대비 차입금의 경우 대기업은 2008년 25.4%에서 2012년 27.0%로 증가, 중소기업은 2008년 27.1%에서 2012년 26.9%로 감소, 그 격차는 다소 축소됨

부채비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차입금/매출액 비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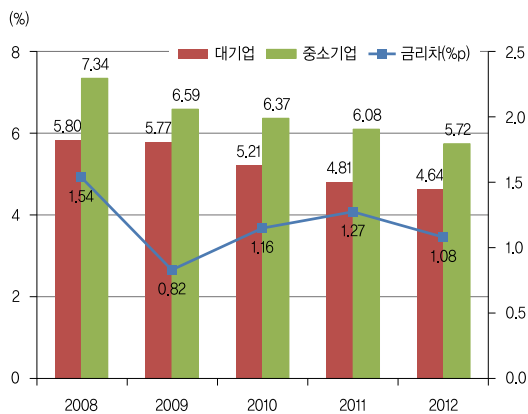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

□ 그러나 중소기업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대기업에 비하여 1% 이상 높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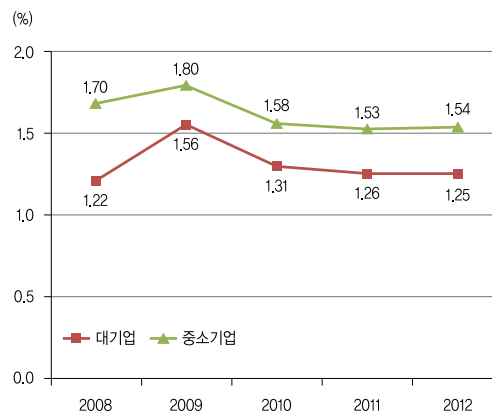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의 차이는 2008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지만,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1%p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
  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입금 평균 이자율 차이는 2008년 1.54%p에서 2009년 0.82%p로 축소되었으나,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1.08%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
-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은 대기업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  -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은 2008년 1.22%에서 2012년 1.25%로 0.03%p 증가하고,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은 2008년 1.7%에서 2012년 1.54%로 0.16%p 감소하였으나,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높은 실정임

차입금 평균 이자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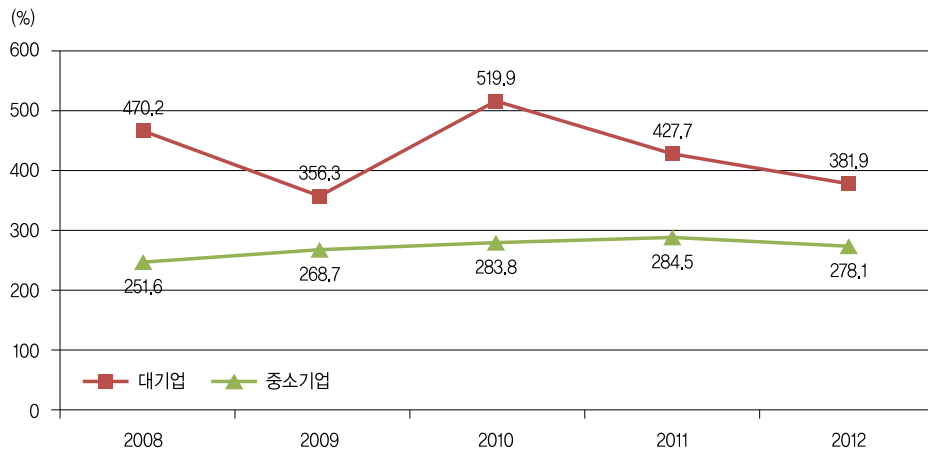
금융비용/매출액



자료: 한국은행

- 특히,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최근 시장의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대기업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임
  - 대기업 이자보상배율은 2008년 470.2배에서 2010년 519.9배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2012년 381.9배 수준이지만, 중소기업 이자보상배율은 2008년 251.6배에서 2012년 278.1배로 증가함
  -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

## 이자보상배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□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, 직접금융 시장 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간접 금융의존도 심화 등을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 조달 채널과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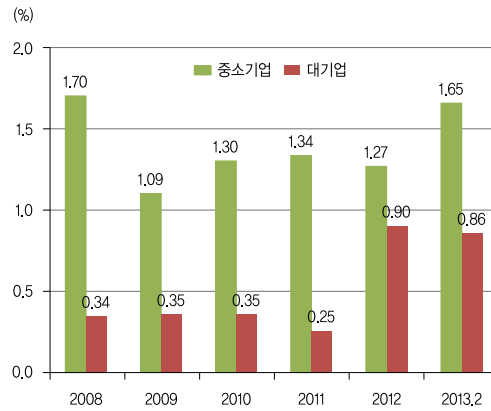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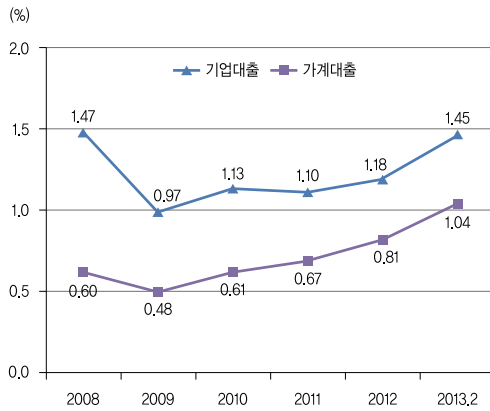
— 국내 가계부채의 규모 및 연체율 증가와 더불어 기업부문의 대출규모와 연체율도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,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음

- 2013년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 중 가계대출은 459.5조원(전체 대출잔액 대비 41%)인 반면 기업대출은 627.4조원(전체 대출잔액 대비 56.5%)으로 2013년 1~2월 중 가계대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은 증가하였으며,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468.2조원으로 기업 대출의 75%를 차지함
- 2013년 2월말 기준 원화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1.45%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<sup>1)</sup>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1.65%로 최근 급격히 높아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
- 반면, 2012년 일부 대기업의 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0.9%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2013년 2월말 0.86%로 감소함

1) 가계대출 증감규모: 2009년 20.8조원 → 2010년 21.9조원 → 2011년 24.9조원 → 2012년 12.0조원 → 2013년 1~2월 -5.0조원  
기업대출 증감규모: 2009년 19.9조원 → 2010년 9.8조원 → 2011년 44.6조원 → 2012년 32.5조원 → 2013년 1~2월 9.4조원

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

— 간접금융을 통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실적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,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 조달 채널과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
- 유럽·미국 등의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최근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규모는 2012년의 경우 총 131조 564억원으로 전년 대비 8.6% 감소하였으며, 회사채의 경우 대기업의 발행규모는 57조 911억원(99.9%)인 반면, 중소기업은 779억원(0.1%)으로 직전 3년간 중소기업의 평균 발행규모(7,125억원)의 10% 수준에 불과하여, 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실정임
-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에 무조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시장 관행 등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, 더불어 간접금융 외 중소기업 전용 회사채 시장,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나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조달 채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

선임연구원 김규림